

# 구조주의 문예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기독교적 문학론 수립에 관한 한 시론"

박총

[복음과 상황 편집위원,

현재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석사 과정(미학 전공) 재학 중]

## 1. 왜 방법론인가?

젊은 기독교인들에게조차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낯설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덧 이 땅에서도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및 '기독교학문연구소' 등 학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기독교 학문'이란 것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학문에 뜻을 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기독교 학문의 성과는 필자가 전공하는 문학의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도출되었다. 먼저 1990년대 초반 김봉군의 「기독교 문학의 본질과 방향」, 박영희의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등의 소책자가

---

1) 본고는 1996년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이후 군복무 중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CUP에서 나왔으며, 이 두 책자를 비롯한 문학 연구 관련 논문을 엮어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이라는 특집으로 「통합연구」 10호가 발간되었다. 이후로 추태화 등이 「통합연구」와 「신앙과 학문」에 활발하게 논문을 기고하며, 기독교적 문학 연구를 살찌웠으며, 「두레사상」 5호는 “문학의 욕망과 기독교”라는 특집을 다루기도 하였다.<sup>2)</sup>

물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연구 이전에도 ‘기독교 문학’이란 명칭을 내건 연구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는 대개 기독교 작가의 작품 또는 기독교 사상이 명백히 드러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더구나 필자가 보기에는 작품에 대한 접근에서 기독교적인 방법론

2) 지금까지 도출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문학 연구 성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 김봉근, “기독교문학의 본질과 방향”, 「통합연구」 10호(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1)
- 박춘덕,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의 기독교 정신의 수용”, 앞의 책.
- 박영희,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앞의 책.
- 전광식, “하나님에 대한 문학적 표현”, 앞의 책.
- 추태화, “억압의 정치와 기독교 문학”, 「통합연구」 19호(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3)
- 박영희,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통합연구」 22호(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4)
- 동성식, “‘좁은문’과 성경의 간텍스트성 연구”, 「통합연구」 25호(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5)
- 강영택, “‘수난시대’: 전쟁의 상흔 속에서 피어나는 휴머니즘, 그 불안감”, 「신앙과 학문」 1권 3호(기독교학문연구회, 1996 가을)
- 김영수, “구운몽의 구원관”, 앞의 책.
- 고진하, “시적 상상력과 영성”, 「두레사상」 5호(두레시대, 1996 겨울호)
- 현길언, “성서와 문학”, 앞의 책.
- 김명석, “김영현 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앞의 책.
- 김응교, “탈종교 시대의 문학과 기독교”, 앞의 책.
- 추태화, “이웃의 현실과 정의의 실천: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권 2호(기독교학문연구회, 1997 여름)
- 문용식, “문학과 신앙의 접목”, 「신앙과 학문」 4권 2호(기독교학문연구회, 1999년 여름)
- 강요열, “기독교 문학의 전형 연구”, 앞의 책.

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문학 연구라 하기에는 곤란한 감이 없지 않다.<sup>3)</sup>

번역서로는 오래 전에 휘튼 대학 리런드 라이컨 교수의 탁월한 저서 「상상의 승리」를 시점으로 그의 다른 책 「기독교와 문학: 세계를 바라보는 창」, 「문학에서 본 성경」 등이 번역되었으며, 그 밖에 호호프의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수잔 갈러거와 로저 런든의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등이 역간되었다. 특히 종교와 문학의 관계를 다룬 우수한 논문을 조만과 고진하가 편역한 「현대문학과 종교」는 일독을 권할 만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수많은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이 땅에 역간된 서구의 번역서에서조차도 방법론 및 문예이론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사실 기독교 학문이라 함은 세계관, 즉 관점의 문제에 그 고갱이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학 연구의 관점이라 할 방법론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는 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문학 연구가 존재했느냐 하는 의문까지 불러일으킨다.

방법론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국내의 문학 연구, 특히 국문학 연구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비평 이론을 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텍스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기존의 인상 비평 및 작가 중심 비평 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방법론에 대한 단일한 태도도 철퇴를 맞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할 때마다 문학 비평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정도로 방법론의 영향력이 지대해졌다.

3) 예를 들어, 「기독교와 한국 문학」(대한기독교서회, 1990)이 있다. 참고로 1990년 이전의 한국 기독교 문학 관련 연구 논저 목록은 이 책의 부록을, 1995년 이전의 서지는 기진오, 「한국기독교문학사론」(성서신학서원, 1995)를 참고하라. 특히 후자는 그 발간 시기로 인해 그 동안 누적된 기독교 학문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오늘날 문학 연구의 핵심에 접근하고 또한 진정한 기독교적 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더불어 대안적인 방법론의 모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왜 구조주의인가?

방법론은 많다. 역사주의, 작가주의, 사회문화적 비평, 신화론, 형식주의, 심리주의, 해체주의, 페미니즘, 독자 지향 비평,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생태주의 그리고 최근의 후기 식민주의 등. 그렇다면 왜 필자는 굳이 구조주의에서 시작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구조주의가 한 편의 텍스트를 넘어 동시대의 문화적 의미, 나아가 시대 정신 및 사고 방식을 추출해 내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한 구조주의 연구자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구조주의적 비평은 문학 비평의 한 형태라고 생각되지만, 취급 대상은 본문의 표층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층 구조란 본문의 배후, 측면, 주변에 암암리에 또는 무의식으로 깔려 있는 구조다. 구조주의 비평은 어떤 점에서, 해당 본문을 산출하고 있는 광범위한 내재적 구조를 밝혀내려 한다.”<sup>4)</sup>

여기서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텍스트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자연스럽게 학제적 연구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파테는 “구조주의는 필연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 사이에 상호 제휴하는 노력”<sup>5)</sup>이라고 했던 것이다.

4) Dan O. Via, Jr., “편집자 서문”, Daniel Patte, *What is Structural Exegesis?*, 이성식 역, 「구조주의적 성서 해석이란 무엇인가」(한국신학연구소, 1987), p. 9.

5) 앞의 책, p. 11

이러한 구조주의의 두 가지 특징은 기독교적 학문 연구가 연구자 및 연구 성과물의 궁극적인 세계관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또한 기존의 분과주의적 폐해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말하자면 구조주의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한 가지 관점에서 일관되게 읽어 내고자 하는 거대 담론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구조주의에 대해 대단한 매력과 친밀감을 느꼈고 천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주의를 알아갈수록 필자의 세계관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월자의 자연사(自然史)에 대한 개입을 말하며 모든 가치와 의미가 외부(신)로부터 수여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지만, 구조주의는 닫힌 구조 안에서의 의미만을 인정하고 구조 밖의 외재적 요소를 거부한다. 또한 기독교는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말하지만 구조주의는 작품을 생산한 작가를 철저하게 배제한다. 더구나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수호하기 위해 술한 이단과 싸워왔지만, 구조주의는 독자의 자율적 작품 해석의 여지를 박탈하고 모든 것이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정론을 내세운다. 이에 기독교적인 문학 비평을 위해서는 구조주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원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기독교적인 인식론에 입각하여 보완·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본고는 그러한 보완 및 수정 작업 시도의 한 기록이며, 어떤 의미에서 구조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론의 비판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의 문학계에서 구조주의가 어떻게 소개되었고, 현재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3. 국문학 연구에서 구조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구조주의 이론은 “사상계”가 1968년 7월호부터 3회에 걸쳐 마련한 특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1972년 「구조주의란

무엇인가」(J. B. 파쭈, 김현 역, 문예출판사)가 발간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구조주의 관련 번역서와 연구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박철회의 「문학개론」(형성출판사, 1975)에 구조주의 비평이 소개된 후 문학이론서에도 주요 이론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조주의는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비평 방법으로서 이제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실정이다.<sup>6)</sup> 15년 전에 이미 이런 말이 나왔으니 이 땅에 구조주의가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구조주의는 성행한 만큼 이 땅의 문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최현무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문학 연구가 수용한 무수한 서구의 문학 비평 주류 중 가장 폭넓은 반향을 야기하고 문학을 둘러싼 논의의 판로 자체를 변화시킨 것은 언어학적·문학적 구조주의, 그리고 그와 함께 현대의 종합 과학으로 부상한 기호론일 것이다. 작품이라는 용어 대신에 텍스트, 내용이나 즐거리 대신 구조, 설명 대신에 분석, 문학 연구 대신에 문학과학 등 일련의 언어 창조물을 싸고 있던 신비화의 베일을 벗기고 언어 자체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 위한 용어의 변화부터가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오늘날 학문도 유행이 좌우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구조주의는 이제 한물간 낡은 이론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호학이 몇 년 전부터 문학 연구에서는 물론 학문 영역 전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조주의가 퇴물 취급을 받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송효섭이 통찰력 있게 지적하듯이 “기호는 약호 체계 속에 존재하므로 기호를 읽어 내는 일은 필연적으

6) 김준오, “구조주의 비평의 수용양상,” 「문학과 비평」(1987, 여름호), p. 222.

7) 최현무, “한국문학과 기호론,” 최현무 엮음, 「한국문학과 기호학」(문학과비평사, 1988), p. 11.

로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기호학의 세례를 더 받기 위해 구조주의를 발로 툭 차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구조주의부터 차근차근 되씹어 보아야 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작품을 새롭게 읽어 낸다고 하면서도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쓰인 논문이 적지 않은 것은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

구조주의에 대한 방법론적 천착 없이 도식의 적용에만 급급한 예를 들어 보자. 정효구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시학적(構造詩學的) 분석(分析)”<sup>8)</sup>은 다양한 구조주의 도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에 실제 도움도 안 되는 도식을 끌어들이는 누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구조주의 이론을 인용한 초기의 논문이 대개 그렇듯이 충위 설정이 일관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작품을 분석했다. 다양한 도식을 끌어들이었지만, 왜 그런 도식이 대입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글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게 도식이 적용된 부분도 있다. 후일 이 논문은 구조주의 문학 이론의 성과를 집약한 「한국 문학과 구조주의」라는 엮음집에 다시 실렸는데, 편자 이승훈은 “이 책에 실린 국내 학자들의 논문은, 내가 보기로는 구조주의의 원리와 방법에 입각해 우리 문학을 훌륭하게 해석한 것들이거나 방법론적 성찰을 담은 것들”<sup>9)</sup>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편자가 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거나 그 역시 구조주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저간에 나와 있는 논문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과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텍스트와 방법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성분이다. 주지하다시피 방법론이란 것은 텍스트를 읽어 내는 ‘관점’에 해당하므로 한 방법론을

8) 「관학어문연구」 10집(서울대 국문과, 1985)에 처음 게재되었다.

9) 이승훈 엮음, 「한국문학과 구조주의」(문학과비평사, 1988), p. 11.

제대로 소화하려면, 즉 적어도 텍스트에 적용시켜 결과를 도출해 낼 정도가 되려면, 그 방법론의 철학적·사상적 배경 및 세계관적 토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소치일 것이다. 특히 기독교적 학문을 하려는 이는 방법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5)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우리 기독 학자들은, 현대 학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세계관과 신앙을 노출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sup>10)</sup> 아무래도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현실적인 모습은 분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나 각개 연구물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전제와 신앙을 노출시키는 것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한우도 “어떤 학자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다음은 그의 과학관을,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끝으로 실증적 연구 성과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sup>11)</sup>고 언급한 바 있다.

#### 4. 그레마스 기호학의 철학적·사상적 근원

따라서 필자는 구조주의라는 방법적인 틀에 대해서 필자의 역량이 닿는 한 바닥에서부터 검토해 가되, 구조주의 중에서도 블라디미르 프롭(Vladimir Propp)의 충실한 계승자<sup>12)</sup>로서 정통적인 구조주의의 모습

10) 강영안, 「기독교와 사회·학문·대학」(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p. 15.

11) 이한우, 「우리 학맥과 학풍」(문예출판사, 1995), pp. 24-25.

12) 그레마스는 자신의 작업과 프롭의 작업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오늘날 비록 그 발견적 가치가 다소간 감소하고 심지어 그 입장이 별로 독창적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프롭의 예를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A. J. Greimas, *Maupassant: the Semiotics of the Text*(1976), trans. Paul Perron

을 견지해 온 그레마스(A. J. Greimas)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필자는 그레마스의 구조주의[구조주의 기호학(structural semiotics)이라고 불린다]<sup>13)</sup>에 대한 튼실한 이해를 위해 그의 이론을 서양 사상사 및 철학사의 전체 맥락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레마스 기호학의 사상적 배경을 찾는다거나 철학적인 자리 매김 없이 그가 제시하는 매력적인 도식의 원용에 급급했던 면을 자주 보여 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먼저 그에게 기호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의 기호학은 기호의 이론이 아닌 '의미 작용'의 이론이기에, 기호에 대한 관념적인 고찰을 짓혀 두고 구체적인 텍스트의 의미 작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연구 대상은 '기호에 선행하는 전제된 모든 것, 기호의 산출을 가능케 하고 이에 도달하도록 하는 모든 것'인데<sup>14)</sup> 이것은 기독교 학자가 하나의 텍스트에서 포착해 내려고 하는 세계관에 다름 아니다. 그레마스에게 기호란 이미 만들어져 존재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그의 주된 관심은 이 기호의 발현에 선행하는 단계, 즉 기호에 의미를 가능케 하는 의미 작용의 망을 탐색하는 데 있다.<sup>15)</sup> 그레마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톨릭 신자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Ams 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8), p. 24.

13) 설화 텍스트 분석에 원용될 수 있는 그레마스의 방법론은 여러 곳에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성베드로출판사, 1984), pp. 163-210.

R.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 (Yale Univ. Press, 1984).

김희영, "기호학적 비평의 이론과 실제", 「문학과 비평」(1987, 봄).

송효섭, 「삼국유사설화와 기호학」(일조각, 1990), pp. 25-34, pp. 271-275.

송효섭, "삼국유사 설화와 기호학",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 기념 논총」(1991), pp. 550-554.

14) J. 꾸르페, 「기호학입문」, 오원교 역(신아사, 1986).

15) 김희영, 앞의 글, p. 139.

것을 믿고, 고전적인 반정립에 입각해 사고한다. 즉, 만일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반대는 거짓이다. 만일 A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Non-A가 아니다. 이 같은 공식은 고전적인 논리학의 논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방법이다.<sup>16)</sup>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구조주의적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설명해 준다. 구조주의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준거와 잣대가 있으며, 그것을 인간이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 사상 체계 중 최후의 것으로 믿어진다.<sup>17)</sup> 또한 주지하다시피 구조주의는 이항 대립에 의한 사고 방식을 기본적인 인식론으로 하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톨릭과 구조주의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레마스는 소쉬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성서 분석에 적용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생각된다.<sup>18)</sup> 그레마스의 그 유명한 기호학적 정방식이라는 것도 대립항과 모순항이라는—포스트구조주의자<sup>19)</sup>들은 받아들이지 않는—전통적인 논리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며,<sup>20)</sup> 그 기본 사고 방식은 고전적인 반정립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레마스 사상의 뿌리를 더듬어가기 위해 그를 사상사적 궤도에 올

16)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와 현대 사상」, 홍치모 옮김(성광문화사, 1992), p. 19.

17)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 뒷부분에 실린 ‘옴니가 해체’를 보면 절대 준거의 상실로 인한 역사, 정치, 과학, 학문, 예술의 몰락이 잘 설명되어 있고, 금세기를 폄하했던 구조주의와의 관계도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장 보드리야르, 「시물라시옹」, 하태환 옮김(민음사, 1992).

18) Groupe d'Entrenvernes로 알려진 리용 대학의 “종교적 演說의 분석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레마스 기호학을 성서 분석에 잘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인석 교수가 그레마스 기호학을 원용하여 창세기 등을 분석하였다.

19) 다소 생경한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김옥동 교수가 지적한 다음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Poststructuralism에 대해 후기 구조주의나 탈구조주의라는 번역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전자는 포스트구조주의를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후자는 구조주의로부터의 이탈이나 단절에 치우쳐서 파악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김옥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현암사, 1991), p. 12.

20) 김희영, 앞의 글, p. 141.

려보도록 하자. 먼저 이 세계에는 진리가 있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레마스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데카르트와 헤겔과 같은 선상에 서 있다. 그는 「구조의미론」에서 언어 그 자체에는 “어떠한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대상에 대한 이러한 합리주의적이고 데카르트주의적인 견해는 그의 일관된 사상으로 그의 전 저작을 관통한다.<sup>21)</sup> 그의 저작들은 데카르트의 「명상」의 기본 개념인 본질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탐색으로 보인다. 그것이 주로 합리주의적이고 비변증법적인 본질이긴 하지만, 그레마스의 이 저작에서 본질에 대한 서술은 「미학강의」에서의 헤겔의 논증을 닮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면은 그가 문학 텍스트를 포괄적인 동위소 현상과 행위자 모델 및 심층 구조에 고정시키려 할 때와, 텍스트의 다의성을 제한하고 독서의 표층 텍스트가 지닌 다의적 성격을 저해하는 장애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그는 니체주의적인 롤랑 바르트에 의존하거나 ‘언어의 무한성’ 속에서 일어나는 독서 과정의 개방성이나 텍스트의 다의성을 찬양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레마스는 헤겔주의자인 골드만처럼 ‘분석된 우주’의 전체성을 인식하려고 시도한다. 바르트가 야콥슨 및 무카르조프스키와 함께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을 문제 삼는데 반해, 그레마스는 문학적·학문적·신화적 및 정치적 텍스트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 초월적 통사론으로 술화(述話)의 기호학을 구상한다.<sup>22)</sup>

21) 가톨릭 신부이면서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카르트는, 가톨릭 신사이면서 진리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구조주의자인 그레마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22) 페터 지마, 「문에 미학」, 허창운 역(울유문화사, 1993), pp. 346-347. 지마의 책은 다른 연구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철학적 맥락을 정확히 짚어 준다는 데 그 우수성이 있다. 7장 “기호학의 제 미학: 세 가지 모델”에서는 바르트와 예코,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찰해 본 결과 그레마스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는 리오타르가 증오한 거대 설화(Grand récit)<sup>23)</sup>를 소유하고 있는 학자이다. 다른 구조주의자들 역시 그런 면을 갖고 있지만, 특히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 혹은 톨리히가 말한 한 시대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을 일관되게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구조주의 기호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눈에 띄는 문제가 적지 않다. 기호학은 완전히 정립되고 자리매김된 학문이 아니다. 그레마스와 꾸르페의 기호학 사전에 기호학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구”로 언급된 것은 기호학이 현재진행형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는 구조주의 기호학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5. 구조주의의 극복과 대안 수립을 향하여

헤르만 도이베르트(H. Dooyewerdd)가 말하듯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한 부분을 절대화하는 데서 비롯되며, ‘주의’(主義, ism) 또한 같은 까닭에서 발생한다. 모든 ‘주의’는 한계를 갖고 있는 바 그레마스를 포함한 구조주의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차원에서 구조주의 기호학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기독교 세

23) 철학계에서 처음으로 포스트모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주목받은 리오타르(J.-F. Lyotard)는 포스트모던을 메타 설화(Metarecit)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하였다[장-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옮김(서광사, 1992), pp. 13-14]. 포스트모던 사회는 모던 시대의 이상이었던 거대 설화(Grand récit)가 사라지고, 이것의 담지자인 메타주체, 보편적 이성, 지식인이 이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사회라는 것이다[장-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편역(문예출판사, 1993), p.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고의 과제가 아니므로 위의 두 책을 참고하라.

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적 문예론 수립을 시론 격이나마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 객관주의의 신화 대 해석자의 자유 의지

우리는 먼저 구조주의가 텍스트를 자율적인 것으로 떠받드는 동안 기호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를 괄호에 넣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독자를 괄호에 넣은 것은 분석의 객관성을 세우기 위함인데, 필자가 볼 때 구조주의의 이러한 성격은 자연과학에 대한 열등감 내지 혐오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는 구조주의가 다분히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며, 과학주의의 후손임을 밝혀야 하겠다. 흔히들 인문과학의 특징으로 ① 가치 지향적, ② 개성 기술적(Idiographisch)이며, ③ 역사성을 중시하고, ④ 연구 대상을 구체화, 내용화한다는 것 정도를 든다. 반면 자연과학의 특징으로 ① 사실 지향적, ② 법칙 정립적, ③ 비역사적이며, ④ 연구 대상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정도를 들고 있다.<sup>24)</sup> 구조주의가 위의 자연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것으로 보아(구조주의적 사고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부터가 그렇다. 파롤이 아닌 랑그 연구, 통시적이 아닌 공시적 연구는 특히 ②, ③, ④를 만족시킨다) 구조주의는 문학 연구가 자연과학적이 되려고 한 몸짓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자연과학적 방법을 동경한 구조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객관성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문학이 자연과학을 따라가려고 한 것인가? 원래 서양 학문은 통합된 형태를 유지해 왔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학자로 알고 있는 뉴턴은 스스로 철학자라 칭하였다. 그러다가 칸트 이후로 오늘날 말하는 理科(Natur-wissenschaft, 자연과학)나 文科(Geistes-

24) 신귀현, "서구의 전통 사회와 인문학," 경상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백의, 1993), pp. 83-84 참고.

wissenschaft, 정신과학)니 하는 것이 나뉘게 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과학을 제외한 기타의 지적 탐구는 데카르트적인 정신·물질의 이원론적 도식의 토대 위에 자연과학과의 명백한 자기 구분을 위한 재정비의 과정을 밟게 된다. 딜타이(W. Dilthey)는 자연과학과 구별된 이들 학문을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하였으며, 리케르트(H. Rickert)는 이를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으로, 빈델반트(W. Windelband)는 역사과학(Geschichtswissenschaft)으로 불렀다.<sup>25)</sup> 그러면서 학문하는 방법이나 목적도 자연과학과는 각각 분리되었는데, 그것은 저 유명한 딜타이의 명제 “우리는 자연을 설명하고 정신을 이해한다”<sup>26)</sup>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인문과학의 가치는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자연과학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인문과학은 자연과학의 성질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는 17세기 과학혁명(그것은 정말 혁명이었다!) 이후 급성장하는 자연과학의 추세 또한 한몫 했을 것이다(그러나 니체는 “19세기를 특징짓는 것은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이 과학을 누른 것”<sup>27)</sup>이라고 조롱하였다).

문학 연구에서 자연과학의 ‘과학성’을 따라가려는 최초의 경향은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종래의 모든 환원론적인 문학관, 이를테면 교훈주의, 상징주의, 심리주의, 작가주의, 사회문화적 비평 등을 공격하고, 문학적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고취하였다. 오늘날 구조주의 문예 이론의 전신(前身)이라

25) 金麗壽, “인문과학의 이념: 과학적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찬,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p. 2-3.

26) 니콜라이 하르트만, 「존재학범주론」(형설출판사, 1987), p. 546.

27) J.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 (Boston: Beacon Press, 1986), p. 295. 강두식·이성원,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앞의 책, 101쪽에서 재인용.

할 수 있는 프라하 구조주의(러시아 형식주의를 계승하였다) 또한 객관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라하 구조주의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기호에 집착하였고, 이는 구조주의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구조주의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구의 객관성은 필자가 볼 때 서양의 근대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콩트(Auguste Comte)의 악령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잠시 여기서 로크마커의 말을 인용해 보자.

18세기 이후 종교란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야 좋은 것이고, 과학, 철학, 학문, 예술 등 문화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두루 퍼졌다. 그리하여 중립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neutrality)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학문적 작업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처럼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부적절한 것은 뒤에 남겨 두고,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항상 진리인 것, 즉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sup>28)</sup>

이런 생각을 집대성한 인물은 알다시피 콩트다. 그는 철저한 무전제적(無前提的) 자세를 모든 학문 연구의 철칙으로 확립했다. 그러나 리(F. N. Lee) 박사가 채치 있게 지적하듯 “이러한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철저한 무전제적 자세는 그 자체가 철저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sup>29)</sup> 우리는 “모든 학문은 학문하는 이의 인생과 실재에 대한

28) H. R. Rookmaaker, *Art needs no justification*,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 예술』(IVP, 1987), p. 16.

29) Francis Nigel Lee, *A Christi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hilosophy*, 박일민 역,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철학사 개론』(성광문화사, 1989), pp. 221-222. 상대주의 또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르짖지만, 그것을 부르짖는 순간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그 주장을 절대화하고 있

근본적인 관점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이란 믿음에 가까운 것이기에 일종의 ‘비종교적 종교’(irreligious religion)<sup>30)</sup>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토마스 쿤(T. Khun)을 위시한 현대의 과학철학자들은 인문과학이 그토록 부러워마지 않았던 자연과학의 객관성을 산산조각 내었다. 쿤은 명저 「과학 혁명의 구조」<sup>31)</sup>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던 과학 집단의 사고와 행위는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는다고 증명하고, 과학혁명이란 패러다임의 교체에 불과함을 보임으로써, 과학사가 사상사와 다름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헨슨에 의하면, 대상은 관찰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대, 신념, 이론, 패러다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관찰은 따라서 ‘이론이 부하된’(Theory-laden)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 시대의 과학적 개념, 이론을 전제로 작업하며, 나아가 그들이 물려받은 틀(Framework),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 세계관을 토대로 활동한다. … 과학자들은 과학 외적인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오히려 해석을 위해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퍼트남(H. Putnam)은 가설의 확인 과정에서 과학자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믿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귀납적 논리가 자연과학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불가피하게 수학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 형식적 부분과, 과학자의 세계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유동적인 신념들과 방법론적 전제와

---

는 것이다. 딕 카이즈는 이것을 두고 “상대주의는 상대화되기를 거절한다”고 말한다 [Dick Keyes,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관용”, 성인경 편, 「혼돈 시대 속의 확실성을 찾아서」(일지각, 1992), pp. 166-167].

30) H. R. Rookmaaker, 앞의 책, pp. 17-18.

31) 토마스 쿤, 「과학 혁명의 구조」.

32) 정병훈,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두 개의 문화인가?”, 경성대 인문학 연구소 엮음, 앞의 책, pp. 217-218.

의도들로 구성되는 비형식적 부분을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자연과학의 사실적 내용과 과학의 방법을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33)</sup>

이런 맥락에서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적 방법을 무시하거나 반과학적인 태도가 과학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그는 “모든 상황에서 인류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옹호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좋다는 원리이다”<sup>34)</sup>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과학적 인식은 문화를 토대로 한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 과학적 인식에는 형이상학적 가정, 가치, 인간적 지향들이 개입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과학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일부로 하는 문화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역으로 과학적 성과는 한 문화가 가지는 근본적 가정, 가치, 지향, 지적인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과 인문학을 가치, 지향성, 의미의 개입 여부로 구분하는 인문학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전체 문화의 한 요소일 뿐이지, 별개의 문화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sup>35)</sup>

구조주의는 문학 연구의 자의성을 비판하며 객관성을 주장했지만 그 또한 결코 분석자의 주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해석자를 제자리에 돌려주어야 한다. 구조주의는 텍스트 내의 구조가 가장 객관적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해석자가 주관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33) Hilary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Cambridge, 1981), pp. 125-126. 김영수, 앞의 글. pp. 17-18에서 재인용.

34) 정병훈 역, 「방법에의 도전」(한겨레, 1987), p. 28.

35) 정병훈, “인문학과 자연과학: 두 개의 문화인가?”, 경상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엮음,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백의, 1993), p. 226.

특히 그레마스 기호학을 비롯한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즐겨 사용하는 이항 대립이 자의적이며 모순이 있다는 해체주의자의 비판을 눈여겨 보자. 이항 대립은 지속될 수 없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상쇄되어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립의 긴장 관계를 견디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사유의 논리적 국면은 그 자체의 생득적 구조에 의해 이론적 종합(Synthesis)의 임무를 착수하도록 재촉받는다.”<sup>36)</sup> 이항 대립의 팽팽한 긴장은 메타 차원에서 종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거나, 한 항이 대립되는 한 항으로 통합되면서 해소되는데, 여기서 텍스트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항 대립이 통합될 때 해석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데리다(J. Derrida)가 말하는 폭력적 위계 질서<sup>37)</sup>이다. 이 지점에서 해석자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주의에 분명한 모순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대신 이제 해석자가 텍스트에서 찾아낸 구조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절대 아니며, 그것은 해석자가 부여한 것으로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해석자가 자신만의 가치관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인 이상 해석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해석자의 분석 작업은 절대적인 구조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퍼스(C. S. Peirce) 기호학의 해석소(Interpretant, 용어 자체가 해석 행위 및 해석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다고 해야 한다.

이항 대립의 해결이 폭력적 위계 질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해체주의로 가야 하는가? 해체주의는 데리다가 말한 폭력적 위계 질서를 까발려서 그것이 인위적이고

36) Herman Dooyeweerd, *Transcendental Problems of Philosophic Thought*, 최성학 옮김, 「기독교 철학의 이해」(태학사, 1986), p. 41.

37) J. Derrida, *Positions* (London: Athlone Press, 1978), p. 36.

권력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해체주의는 아나키즘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상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인식의 확증성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이 세상에 해체주의적 인식이 판을 친다면 ‘확실성’에 대한 갈급함이 증대하게 되고, 그 결과 누군가가 개입해서 또다시 자기 본위의 위계를 만들어 내고 정당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체주의나 부정부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해체주의에서 볼 때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믿는 이의 것일 뿐이다. 기실 해체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 학문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믿는 필자로서는 해체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가 구조주의에 대한 해체주의자의 비판에 귀기울이면서도 해체주의로 가지 않고 구조주의의 사고 틀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한 것도 필자와 같은 식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객관성이라는 구조주의의 신화를 버리고 해석자를 복귀시키기 위해 그레마스와 퍼스를 연결하려고 한다. 필자는 텍스트 분석의 방법은 그레마스의 방법론을 고수하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소통 상황은 퍼스의 것을 원용하려고 한다. 즉, 텍스트를 하나의 기호로 보고 해석자인 필자가 텍스트를 읽어 낸 결과를 ‘해석소’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심층 구조에서 지배적인 ‘동위소’(Isotopy)<sup>38)</sup>를 선정할 때, 대립과 중재, 통합의 양상을 밝힐 때에 해석자의 역할이 많이 요구된다. 또한

38) 동위소는 그레마스 기호학의 근본적인 용어 중 하나이다. 「구조의미론」 영문판 서문에서 로날드 슈라이퍼가 지적했듯이, 그레마스는 동위소 개념을 통해 기호학의 초점을 문장에서 담론으로 바꾸어 놓았다[A. 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66), trans. Daniele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ile(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바로 이 점에서 동위소의 개념은 텍스트를 텍스트 밖의 문화적인 맥락(cultural context)에 연결시키는 매개물로 사용될 수 있다.

해석자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분석에 차이가 생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퍼스의 '해석소'와 '기반'(Ground)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의미는 마음의 기호인 해석소가 만들어지는 양상에 따라 달라지고, 해석소가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sup>39)</sup> 이렇게 소쉬르의 기호학(구조주의 기호학)과 퍼스의 기호학은 해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호는 체계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기에 구조주의적으로 읽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며, 기호가 읽히려면 해석의 주체가 상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퍼스의 해석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짐작했겠지만 여기서 해석학이나 수용 미학적 사고가 요청된다.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만남의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해석자와 작품의 만남을 기다리는 해석자와 작품이 각각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대화로 파악한다. 작품은 이미 그 작품이 쓰인 시대가 안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해석자는 결과적 결정체로서의 작품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관여하고 있는 물음에 귀를 기울여 '작품과 더불어' 그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다.<sup>40)</sup> 리코르(R. Ricoeu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의 작품에 대한 독서는 모두 어떤 공동체와 전통과 지금 살아 있는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독서가 텍스트와... 아무리 밀접히 연관되어 있더라도, 편견과 절박한 사정이 독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드러내 준다."<sup>41)</sup>

퍼스와 해석학, 수용미학이 이렇게 동시에 요청되는 것은 그것들이 공히 헤겔이 아닌 칸트 미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레마스가 데카르트나 헤겔에 근원을 두고 있기에 그 이

39) John K. Sheriff, *The Fate of Meaning: Charles Peirce, Structuralism, and Literature* (Princeton Univ. Press, 1989), p. 59.

40) *Truth and Method*, 2부 2장, 특히 S. 333-341 참고.

41) Paul Ricoeur,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Essays in Hermeneutics*(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4), p. 3.

론의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헤겔 미학과 대칭점에 있는 칸트 미학의 통찰력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사상적, 문화적 심층을 궁구하는 구조주의의 방향에 동승하면서 해석자로서의 독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 달려진 체계의 인과율 대(對) 문화적 맥락의 해석

구조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구조'라는 개념에서부터 비롯된다. 다름 아니라 텍스트를 구조에 가두지 말자는 것이다.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근대철학을 약 3세기 이상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한 장본인은 로크와 그의 추종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분리적이고 독립적인 물질들은 그 자체로 내부의 구조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는 별개로 생각하는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sup>42)</sup>

그레마스 이론은 텍스트를 문장[Sentence(SVO→SAO)]에서 행위항으로, 행위항에서 기호학적 정방향으로 점점 추상화시켜 가치의 역동적 움직임만을 남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를 가치의 표현이라고 보는 필자로서는 그레마스 기호학을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나 갇힌 구조 안에서는 요소 간 관계에서의 의미밖에 남지 않으며, 요소를 뛰어넘어 일관되게 의미를 부여할 보편자를 찾을 수 없다. 텍스트를 질서 있게 조직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밖의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당대의 문화 체계를 전체주의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구조주의는 외부에서의 의미 부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텍스트의 문화 맥락적인 해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달린 구조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를 달린 인과율

<sup>42)</sup> Arthur Oncken Lovejoy, *The Revolt Against Dualism*, 1930, p. 83.

의 체계로 보고 외부에서의 의미 부여를 거부한 채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 자연주의자들<sup>43)</sup>의 신념과 상동성(相同性, Homology)을 갖고 있다. 웨퍼 박사가 지적한 대로 자연주의자들은 닫힌 체계 내에서 모든 요소에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는 보편자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의 개별자를 보편자로 내세우다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계속할 뿐이었다.<sup>44)</sup> 닫힌 인과율의 체계에서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폴 사이먼은 이렇게 그려 내었다.

벽에 박은 두 눈에 회끄무레 비치는 건  
 내 삶의 틀(Pattern)과 '나'라는 수수께끼  
 내 출생의 순간부터 죽음이 경각에 달한 그 시간까지.  
 마치 매순간 숨을 내쉬어야 하듯.  
 미로 속의 쥐처럼 앞으로 뻗어 있는 통로를 따라  
 이리저리 빠져나가야 하는 어떤 틀들이 있다.  
 그리고 그 틀은 결코 바뀌는 법이 없다.  
 그 쥐가 죽어 나자빠지기 전에는…  
 —폴 사이먼, "Patterns."<sup>45)</sup>

43) 닫힌 인과율 체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Francis A. Schaeffer, "Book Two: How Should We Then Live?", in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ume Five, A Christian View of the West* (Westchester: Crossway Books, a division of Good News Publishers, 1982), pp. 165-182 참고.

44) 웨퍼는 철학의 역사를 보편자의 수립과 붕괴의 악순환으로 본다. 어떤 사람이 실재에 대한 통일되고 참된 지식을 줄 보편자가 있다며 원을 하나 그리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며 가위표를 그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새로운 원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위표를 하고 또 다른 원을 그린다. 같은 책, p. 171.

45) Hans R. Rookmaaker,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김유리 옮김,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IVP, 1993), p. 71 cit.

이제는 맥락(Context)를 텍스트화(Textualizing)해서 텍스트에 포함 시키자. 하나의 텍스트를 전체 문화 맥락에서 해석하고, 동시대의 문화는 텍스트의 해석에 입각해 해석하자. 이것은 딜타이(W. Dilthey)가 말한 해석학적 순환과 다름 아니다. 필자는 이를 조심스럽게 ‘해석학적 기호학’(hermeneutical semiotic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텍스트 간의 상호 작용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상호 텍스트성을 텍스트 밖의 문화적인 맥락과의 작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sup>46)</sup> 따라서 텍스트간의 상호 작용을 상정하면 문학 작품을 언어학만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호학이 초언어적 과학(Translinguistic Science)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sup>47)</sup> 조나단 켈러 또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개념을 주어진 텍스트가 속해 있는 문화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켈러에 의하면 “상호텍스트성은 어느 한 작품이 그 이전의 특정한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작품이 한 문화의 언술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그것은 어느 텍스트가 한 문화의 다양한 언어나 의미 행위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문화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가리킨다.”<sup>48)</sup>

### 환원론의 배경 대(對) 담론으로서의 텍스트

구조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작가를 배제하는 것이다. 작가로부

46) 참고. “Words, Dialogue, and the Novel,” in *Desire and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ed. Leon S. Roudiez, trans. Thomas Gora, Alice Jardine and Leon S. Roudiez(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 15. 그리고 pp. 51-55, 83-85도 보라.

47) 같은 책, p. 69.

48) “Presupposition and Intertextuality,” in *The Pursuit of Signs: Semiotics, Literature, Deconstruction*(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 103.

터 작품의 의미를 구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 이후 현대문학비평에서 철칙처럼 준수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학 이론에서 아무리 작품이 자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작가가 첫 번째 의미 부여자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필자가 작가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유에서이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말하고 의미한 바가 지켜진 상태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적인 권리”<sup>49)</sup>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든 작가의 세계관과 그의 의도는 작품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작가를 팔호에 넣은 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로 환원되는 이른바 ‘의도의 오류’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필자 역시 작가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이상, 텍스트의 모든 요소를 의식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또한 텍스트는 치밀하게 짜여진 구조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의미 부여를 떠나 그 내적 체계 자체에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또한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고 보인다. 그러나 텍스트는 작가가 의도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 역시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텍스트를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한 담론으로 보는 것은, 작가가 텍스트의 모든 의미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작가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즉, 텍스트를 잘 짜여진 지식으로 본다면 이를 조직하는 데는 일종의 권력 기제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푸코의 지속적인 작업은 권력이 담론을 통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담론이 얼마나 권력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sup>50)</sup>

49) Leland Ryken, *Windows to the World*, 권연경 옮김, 「기독교와 문학: 세계를 바라보는 창」(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p. 114.

50) “Power produce knowledge. Power and knowledge directly imply one another. There is no power relation without the correlative constitution of a field of

우리는 푸코에 기대어 작가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작가가 기존의 사상과 의미를 담은 기호를 사용해 텍스트라는 자신의 담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품은 권력 실현이라는 담론의 차원에서, 작가는 문화 권력의 행사자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환원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의미 부여 사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 6. 맺는 말

본고는 기존 기독교적 문학 연구의 문제점인 방법론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여 구조주의 방법론의 장점과 문제점을 거론하였으며, 이의 비판 및 보완을 통해 부족하나마 기독교적 비평론, 기독교적 방법론의 수립을 시도해 보았다.

결국 필자는 이런 방법론을 택할 것이다. 먼저 정치(情綴)한 구조주의적 방법에 의해 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미를 생산해 낸다. 둘째, 그 텍스트가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컨텍

---

knowledge, nor any knowledge that does not presuppose and constitute at the same time power relation.”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London: Penguin, 1979), p. 27. 또한 푸코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문제 의식은 이런 겁니다. 즉, 진실을 구성하는 담론을 생산함에서 권력 관계는 어떠한 규칙을 행사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실의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권력이 작동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담겨 있는 숨은 뜻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사회적 육체를 구성하고 성격 지우는 다양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권력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론의 생산과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관계를 구축하는 진실의 담론이 생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의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권력을 통하여 진실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에서 빠져 나올 수 없으며, 역으로 진실의 생산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콜린 고든 편, 홍성민 옮김,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 1991), p. 125.

스트를 텍스트화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확인, 수정 및 확장한다. 셋째, 작가의 세계관이 작품에 투영됐다고 믿는 점에서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담론의 차원에서 확인, 수정 및 확장한다. 넷째로, 텍스트,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가 모두 당대의 문화 패러다임에 속해 있으며, 그 패러다임을 한 세계관이 전체주의적으로 장악한다는 점에서 세계관을 추출해 낼 것이다. 다섯째, 해석자를 복원시켜 해석자와 그가 사용하는 방법론이 속한 현재의 문화적 패러다임과 텍스트를 생성하고 유통시킨 당대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비교하며 잠재된 세계관을 돋보이게 한다.

필자의 학문이 짧아 본고가 여러 미진한 점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사유에서 비롯된 비평론 및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일말의 가능성을 보였다면 그것으로 의의는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시안들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기약한다.